



군산장례(전문)예식장



거품없는 장례비용으로 예(禮)와
정성(情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T. 468-4119, 4444



예식실



사우나실



2층로비

동군산 장례식장



'가장 가깝고, 가장 편리한 곳에서
마지막 친절을 보내주세요'

T. 441-4444



SHIDAO International Ferry

상상을
그 이상을 향해!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페리(주) www.shidaoferry.com

부산 tel. 051-441-1210 fax. 051-441-1210

전주 tel. 055-251-1558 fax. 055-251-1283

서울 tel. 02-315-7541 fax. 02-315-1871

하역/운송사(주)인 tel. 051-441-1500 fax. 051-441-1500



박승일
회장
newgunsanew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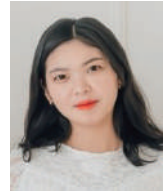
김민재
운영위원장
newgunsanews@naver.com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강권모
부사장
sky6113483@hanmail.net



이준은
편집부장
leejony_@daum.net



최승호
취재부장
gsport11@naver.com



박세원 편집위원
작가
hamp38@hanmail.net



신상호 편집위원
지필문학/대한문학
편집발행인
군산예총 부회장
shinez2580@hanmail.net



오성렬 편집위원
칼럼니스트
poi3275@naver.com



이영미 편집위원
프리모아트컬렉션
(사)이음예술문화원 대표
ycm1022@hanmail.net



배수정 편집위원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 서양화 강의
jlmjlm710@naver.com



신솔원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speedal@hanmail.net



김선순 편집위원
시인
군산대학교 졸업
시치료·독서치료전문가



공종구 편집위원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kong@kunsan.ac.kr



정미란 편집위원
서강SLP 군산 영어학원장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강사
수필집 『Essay in May』
jmr6114@hanmail.net



김철호 편집위원
계곡가든 꽃게장 대표
대한민국 명인·세계 명인
식품의약학 박사
(조선대 대학원)
www.crabland.com

Vol.174 | 2025.11.12



회	영	장	승	일	newgunsanews@naver.com
운	위	김	민	재	newgunsanews@naver.com
발	행	인	명	룡	ml7614@naver.com
부	사	채	권	모	sky6113483@hanmail.net
편	집	강	모	은	leejony_@daum.net
취	재	장	승	호	gsport11@naver.com
편	집	위	박	세	hamp38@hanmail.net
편	집	위	원	신	shinez2580@hanmail.net
편	집	위	원	오	poi3275@naver.com
편	집	위	원	이	ycm1022@hanmail.net
편	집	위	원	정	jmr6114@hanmail.net
칼	럼	니	스트	배	jlmjlm710@naver.com
칼	럼	니	스트	신	speedal@hanmail.net
칼	럼	니	스트	공	kong@kunsan.ac.kr
칼	럼	니	스트	김	3585711@naver.com
칼	럼	니	스트	김	www.crabland.com
문	위	원	이	진	jay0810@hanmail.net

동원일의 생기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WURI 세계혁신대학 5년 연속 선정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부문

(특집 2020 45위, 2021년 27위, 2022년 32위, 2023년 31위, 2024년 30위 선정)

고용직업교육 통합인문대학 | 교육부 고용직업교육거점 지구(HIVE 1유형) 사업 선정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2유형) 선정대학 | 교육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2.0) 운영대학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 고용노동부 고숙련 일학습병행(IP-TECH) 운영대학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운영대학 |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운영대학



자유로 도전과 정경의 대학

군장대학교

죄송합니다....‘격월간 발행’

창간 56주년을 맞는 국내 최장수 교양잡지 월간「샘터」가 2026년 1월호(통권 671호)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샘터사는 “스마트폰이 종이책을 대체하고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활자 미디어를 월등히 뛰어넘는 시대적 흐름을 이기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의 첫 직장이었던 ‘샘터’.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월간 최대 판매 부수가 50만 부를 기록했다.

그러나 ‘샘터’ 역시 종이 잡지의 쇠락이라는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샘터’가 그동안 지면에 담아 온 독자들의 사연은 1만 1,000여 개에 이른다.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깊은 공감과 감동, 웃음을 자아내는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을 위로했다.

샘터에 견줄 바는 아니나, 2011년 4월 창간호를 냈던 매거진군산 또한 줄잡아 1,000건을 훌쩍 뛰어넘는 군산 사람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실어왔다.

창간 이후 13년 6개월 달려왔던 매거진은 2023년 11월 필자에게 몸을 의지했고, 다시 2년이 지났다.

필자는 ‘숙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하여 ‘누구나 인생 스토리가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샘터를 핑계 삼지 않더라도 월간 잡지 한 권을 만들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제작비 시비도 있었으나 사필귀정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힘든 건 참고 견딜 수 있었지만, 나와 제작진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일은..... 정말 힘들었다.

그 이후 감당할 만큼의 짐만 지기로 결정했다.

격월간 발행하는 점을 해량해 주시길 바란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글 |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군산은 지금, 다시 일어서는 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도정 4년의 성과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군산 출신 김관영 전 국회의원의 도지사 출마와 당선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바람이 그 원동력이었다.
그의 진정성은 군산은 물론 전북 전체에 활력을 일으켰고, 기업 유치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군산은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올라섰고,
산업단지마다 줄줄이 입주하는 기업들과 더불어 일자리 생태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때 조선업 몰락과 대기업 철수로 침체를 겪었던 도시가, 이차전지와 재난안전, 수산가공 등
미래산업으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를 만나 이차전지부터 재난안전까지 민선 8기 3년 동안에 이뤄진
군산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듣는다.



○. 거대한 전환점에 선 군산

김관영 지사는 군산에 대하여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시민이 중심에 있다.”라는 말로 군산의 산업 재편과 시민 삶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전망하고 있다. 전북이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김 지사의 답변은 미래 지향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말 역사적인 한 해를 보냈지요.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되면서 서울을 압도적으로 꺾었고, 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누군가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면서 하계 올림픽 후보 도시 선정 과정에서 서울과 겨뤄야 하는 어려움을 말했다. 하

지만 김 지사는 스스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진심이 녹아든 말과 행동은 그 이후의 행보에도 계속됐다. 군산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산업 구조 재편과 산업체 유치에 직접 나서면서 군산 출신 도지사로서의 역량을 한껏 발휘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도 지정받으면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떠올랐죠. 특별법 시행으로 이차전지 산업 촉진,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실질적인 특례들이 작동하고 있고, 새만금고용특구 같은 전략지구들이 만들어지면서 각 분야의 성장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하계올림픽전북전주국내후보도시단독선정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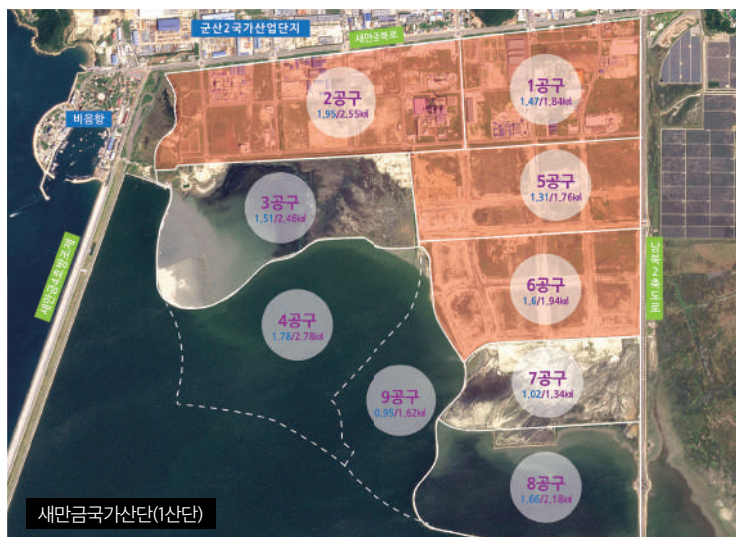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2036하계올림픽국내후보도시선정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추진단출범식



○.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에 선 군산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
화단지로 선정된 과정
에는 김관영 지사의 역
할이 컸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군산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차전지 산업 거점이 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발걸음이 군산을 향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8.1km² 규모의 ‘이차 전지 특화단지’는 국내 최대, 동북아 최대 이차전지 생산 기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까지 LG화학, LS MnM, 룡바 이코리아, 디에스단석 등 국내외 47개 기업이 입주했고, 총 1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전체

투자액 중 약 77%가 이차전지 분야라고 했다.

군산이 신산업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나면 예전의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에는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도 들어섭니다. 또 군산대학교와 협력해 연간 2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부트캠프와 배터리 아카데미도 운영 중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이 단순한 산업 성장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교육 혁신, 인구 유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의 말에서 군산 출신 도지사로서의 자신감이 읽혀졌다.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산업단지



새만금 동서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새만금33센터 방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군산 인구가 2만여 명 줄었는데, 그 대책은 있을까

군산의 인구가 2017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는 인구가 25만 5,000명에 턱걸이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많이 언급되는데,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에 대하여 김 지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들의 단순한 투자만 있었다면 지금의 반응이 없었을 겁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이 출범했고, 이 지원단이 지금까지 570명의 구직자를 발굴해 170명이 실제로 취업했어요.”

군산이 산업 도시로서 입지를 굳혔던 시기의 GM자동차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같은 노동집약형 기업들처럼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입주 기업들이 총 1만 명 이상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지역민이 고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고용과 교육이 연계 시스템을 갖추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인구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다.

“군산대, 전북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훈련 시스템까지 갖춰지면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서 벗어나는 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군산에 특별한 정책 펼쳐

새만금의 일차적 피해자들인 군산 지역 어민들의 상황은 어려움 그 자체이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김 지사에게도 군산과 전북 지역 어민들이 피부에 닿는 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시험어업 승인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삼이나 전복을 잡으려면 직접 물에 들어가거나

비싼 장비를 빌려야 했는데, 이제 어업 잠수사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험 중입니다.”

군산과 부안의 109개 마을어장이 대상이고, 생산 비용을 줄여 소득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려는 차원의 새로운 수산자원 포획 방식 도입을 위하여 지사가 직접 뛰고 있다는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북과 군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많다. 그중에서 침수 걱정을 덜고 외딴 섬 마을 주민들을 위한 운임 정책은 체감 행정으로 손꼽힐 일이다.

“시민들의 생활 전반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재난안전 기반 시설 정비로 장마철 침수 걱정이 줄었고, 섬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객선 천 원 요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예전 왕복 1만 원 넘게 내던 여객선 운임을 이제는 2,000 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이 변화는 단지 제도 변경이 아니라, 실제 어업인들의 삶의 질과 소득에도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변화여서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 고향 군산에 대한 감회 새로워

군산 출신 도지사로서 임기 4년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김 지사는 '고향 군산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도정의 힘을 얻는다고 했다.

“군산이 더 이상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고 싶은

도시, 정착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며 오늘을 만든 군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김 지사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변화는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말로 다가올 미래가 더 희망적일 거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차돌박이 & 대패삼겹 환상의 궁합’

스마일맨 김형민 사장 새로운 도전
작지만 오래 가는 음식점 꿈꿔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언제나 스마일 맨

돌패집? 음식점 가게 이름이다. 돌패집! 고깃집(차돌과 대패) 상호치곤 다소 썸뻔!

미장동 주공아파트 후문 큰 길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동네 이웃들과 지인들이 부담 없이 고기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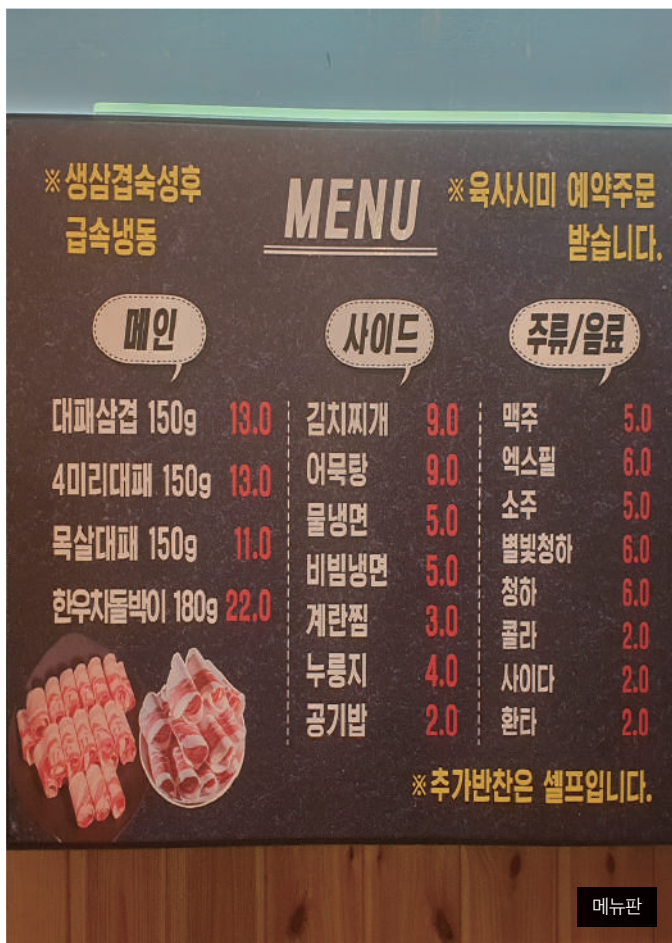
반전! 가게 안이 크지 않은 규모의 소박하고 셀프바 등 정돈이 잘 되어 매우 깔끔한 분위기다. 반전의 반전! 이곳 돌패집의 사장인 김형민 씨의 인상이 너무 편하고 부드러워 마치 동네 아는 동생이나 학교 후배같이 친근하다. 웃는 모습에 친절함이 두툼하게 배어있어 더 호감이 간다.

“지난 9월 24일에 문을 열었어요. 아직 만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새내기 사장입니다. (미소를 살짝 짓고) 많이 쑥스럽네요. 우리 집이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가게도 아니고, 아직 소문난 맛집도 아닌데...”

인터뷰에 어색해 보였지만 밝은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다.



오픈날



메뉴판

돌패집(차돌&대패)... 다양한 나물로 조합

“한우 차돌박이와 생삼겹을 숙성 후 급속냉동한 신선하고 맛있는 대패삼겹을 메인 요리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살대패도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 사장이 추천하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 하나. “파김치나 다양한 나물에 곁들여 드시거나 고기에서 빠진 기름에 김치를 살짝 구워서 생채와 같이 먹으면 고기의 질감과 채소의 칼칼하고 아삭한 맛이 아주 좋아요. 손

님들이 취향과 입맛대로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쑥스럽게 얘기하면서도 돌패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다.

“된장찌개나 계란찜도 리필이 많아요. 맛있다는 말이겠죠!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이 준비된 셀프바를 보면 김 사장의 정성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도전, 식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했습니다. 다른 영세 자영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중고차 매매) 여기도 많이 어려운 게 현실예요. 지금도 손을 놓지 않고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단골이 소개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이죠. 가게 운영하고 겹치거나 힘들지는 않아 자연스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결과는 두고 봐야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미소를 띠며 밝게 웃는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나 상황에 부딪히면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건 성격상 절대 질색이거든요. 이런저런 고민 중에 지인의 소개로 돌패집을 열었죠. 오픈 준비하면서 주위 아는 분들과 어머니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들 식구처럼 도와주고 때론 손님으로 또 오시고” 미소로 고마움을 전하는 것 같다.

“절대 무리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작게 시작했지만,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는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처음부

터 성실하고 착한 베트남 여성 직원하고 같이 해왔어요. 케미가 좋은 편이죠. 손발이 잘 맞아 아직까진 서로가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강하게 전해졌다.

돌패집 오픈 D-day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돌패집 오픈 첫날은 어땠을까? “9월 24일이 오픈 날이었어요. 평일인데도 정말 많은 분이 찾아주셨지요. 일찍부터 친척들과 지인들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맛있게들 드시고 갔습니다.” 그날 마련한 고기와 재료가 거의 다 소진되었을 정도로 매출이 꽤 좋았다고 한다. “가게가 작아서 많은 양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흔히들 오픈발이라고 하는데(웃음). 암튼 기분이 좋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만족이었죠.”

“그날 많이 바쁜 시간이라 일일이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행복한 모습을 사진 찍어서 인증샷 올려주신 분들이 기억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최근까지도 가끔 오시는데 열심히, 잘 모시고 있습니다.”



인근 동네에서 오신 분들도 발길을 잇고 있다고.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가볍게 드시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남는 건 간단히 포장도 해드리기도 합니다. 맛도 맛있지만 분위기가 좀 편안하고 부담이 크지 않아서 맘에 든다고.”

이어 “테이블이 널찍하고 자리도 넉넉해서 소모임 예약도 가능하 다. ‘가게는 작지만 자리는 편안하게’, 손님들이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엄지척한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인구도 줄고, 특히 요즘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정말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요. 저 자신과 약속한 것도 있어요 ‘오래 가자’고. 가다 보면 조금은 좋아질 거라 희망하고 그 결과를 굳게 믿어요. 자영업 사장님들 힘내세요.” 오래, 같이 가자는 의미일게다.

초저녁 무렵 작지만, 분위기가 좋은 돌패집 문이 열리고 간판에 밝은 조명이 들어온다. 빠른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주 한 잔 부딪히기 위해 오늘도 사람들이 돌패집을 향한다. 스마일 맨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돌패집
미장1길 38 1층
영업시간 오후 4시~11시 30분(매주 일요일 휴무)
예약문의 010-8568-5669

마음에 닿는 시, 목소리로 피어나다.

글 | 정미란
jmr6114@hanmail.net



시란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그려지는 언어의 꽃이지만 아무도 시의 정답을 내놓지 못한다.
그럼에도 살아있으므로 시는 정답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시의 정답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시인 이오장의 [시평] 중에서

언어가 가장 섬세한 결을 드러내는 예술, 시가 품은 표현은 시인의 단어에서 독자들이 느끼는 내면의 공감을 함께하는 감정의 울림이 아닐까.

그래서 시를 읽는 일은 단순히 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내면에 잠시 들어가 그 사람이 본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행위일 수 있다.

시가 지면 위에만 머무를 때, 그 아름다움은 때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다. 언어는 본래 소리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의 가슴에서 낭송자의 음성으로 시가 또 다른 생명력을 찾는 시낭송 모임 한시예—한국 시낭송 군산 문화 예술원—은 다양한 연령대 20여 명의 여성 낭송가들이 만든 군산의 시낭송 모임이다. 한시예는 2022년 6월, 시를 사랑하는 여성들이 모여 시작한 첫 모임 이후 2023년부터 장미갤러리에서 매주 화요일 시 낭송을 함께하고 있다.

12월 차가워진 겨울바람 끝이 싸하게 느껴진 날 한시에 회원들이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장미갤러리 공연장을 찾았다. 시낭송에 참여하는 20명의 낭송가들은 각자가 선정한 음악을 배경으로 다양한 시들을 낭송하고 있었다. 2025년 한 해를 정리하며 준비하는 12월 9일 [송년 시 낭송 콘서트]를 위한 리허설이었다. 무대 위에 조용히 들려오던 그들의 시와 목소리처럼 이 날 군산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렸다.

나에게 시는 낯선 영역이었다. 지난해 수필집을 낸 뒤 글쓰기의 폭을 넓히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시를 낭송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다. 글쓰기와 다르게 목소리로 시를 전한다는 것은 내겐 도전처럼 느껴졌다.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

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긴장과 함께 나도 무대의 일부가 된 듯한 마음을 일으키며,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문을 열어주었다.

이 날 만난 한시에 회원들 대부분은 군산에서 시와 글을 써온 이들이었다. 글을 쓰며 인연이 된 여러 작가들의 모습에 반가움이 먼저 다가왔다.

시집과 수필집 등 여러 권의 책을 낸 전재복 작가, 박선희 작가, 이숙자 작가와 조귀녀 작가, 그리고 낭송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강리원 시인까지. 이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무대를 만들며 그들만의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를 가장 세심하게 이끄는 사람이 있었다. 배경음악을 확인하고, 무대 인사와 낭송의 흐름까지 일일이 살피는 채영숙 한시에 회장이었다. 그녀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한시예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 사회에 시와 낭송문화를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한시예는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내 질문에 채영숙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답했다.

“시를 좋아하고, 원만한 성격이면 누구든 가능해요. 낭송은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마음의 문턱을 낮춰주는 부드러움 속 시의 정의와도 닮아 있었다.

특별한 사람만이 시를 쓰거나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 시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 말이다.



로템요양원 봉사



서천 노인복지관



시간여행축제 공연

한시에는 매년 노인회를 위한 시낭송 봉사, 3.1절 기념 시극 공연 등 지역의 여러 행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내 질문에 답한 채영숙 회장의 말이 오랜 시간 내 마음에 머물며 따스하게 다가왔다.

“우리 서로 나이 들어가며 시를 나누고, 인문학적인 멋쟁이로 동행하는 거 어때요?”

그 순간 낯선 낭송이란 세계에 선뜻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리고 시낭송이 단순한 표현의 기회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나누게 하는 또 하나의 따뜻한 인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들었다.

그날 장미갤러리에서 마주한 목소리들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 하나하나에는 오래 품어온 삶의 온기와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었다.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였을 뿐인데도 그 작은 공간은 따뜻한 풍경이 되었고,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서면 자신도 모르게 시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것만 같았다.



3.1절 기념식, 공연 모습



25 시낭송 콘서트 식전 켄배공연

[송년 시 낭송 콘서트]가 있던 날, 알록달록 다양한 차림의 한복과 드레스로 한껏 멋을 낸 20명 한시에 회원들의 시 낭송이 열린 곳은 군산세관 옆 <정담카페>였다. 지인들과 주변을 관광하던 사람들까지 함께 한 행사장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시가 있는 축제의 공간이 되었다.

식전 순서인 켄배공연에 이어 낭송이 시작되었다.

잔잔한 배경 음악 위로 흐르는 시 한 구절 한 구절은 저무는 한 해를 기억하며 12월을 마무리하는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낭송자들은 각자의 감정을 담은 목소리로 시어를 통해 마음을 전했고, 관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공감하며 그 울림을 함께 나누었다.

작은 카페를 가득 채운 그곳의 분위기는 12월의 날씨도 있게 할 만큼 포근했다.

낭송이 끝난 뒤에는 서로의 소감을 나누고 사진도 찍으며 편안하게 이어졌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었던 저녁이었다.

문학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세계가 아니듯, 시낭송 역시 시를 좋아하고 공감할 줄 아는 누구나의 일상이 될 수 있음을 실감한 시간이었다

마음과 마음 사이를 이어주는 시의 울림, 그 소박하지만 눈부신 예술이 바로 한시예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였다.

“다시, 시작의 자리에서”

박세원 작가, 수필집 출판기념회
2025년 11월 29일 풍원교회 카페
진솔함과 톡톡 튀는 위트와 유머 눈길
퇴직 후 글쓰려고 준비한 흔적 돋보여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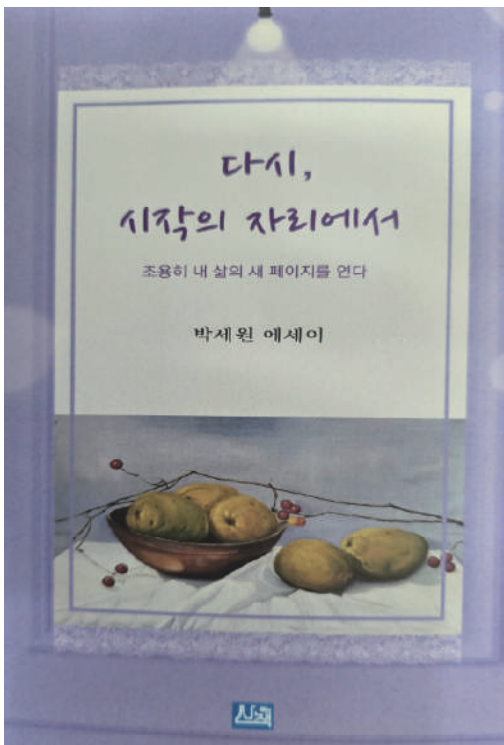
교육 공직자로 정년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외출’을 시도한 그녀의 글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
공립 단설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작년 정년퇴임한 박세원 씨의 첫 수필집은 기대한 바 그대로였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4시 풍원교회 카페에서 열렸던 『다시, 시작의 자리에서』 출판기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용한 가운데 튀지 않았으나 갖출 건 다 갖춘 행사였다.

이날 강임준 시장과 황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윤신애 시의원과 나루문학 회원들, 교회 임직자와 작가의 지인 등이 자리를 꽉 채웠다.

강임준 시장은 “어렸을 때의 꿈이 ‘시인’이었는데, 철학과 문학을 하려는 나를 집에서 말렸다.”라고 회고하면서, “박세원 작가처럼 글 쓰는 직업을 가졌더라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라고 축하의 말을 예뉘러 표현했다.

이번 책은 1부 ‘함평 천지, 아버지의 노래’, 2부 ‘다시, 시작의 자리에서’, 3부 ‘여름날, 붉은 그리움이 피다’, 4부 ‘제2의 인생, 빛을 배우다’ 등 주제별로 모두 40편에 달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다.



○ 정년 이후, 작가로서의 삶은 준비

정년 이후의 삶을 위해 그림과 사진을 배우고, 그 자산으로 새로운 작가의 길에 입문하였기에 작품마다 진솔한 마음이 묻어났다.

「물속에서 얼마나 놀았는지 통통 붉은 손이 쭈글쭈글 부챗살이 되어 있고 뱃가죽은 등쪽에 달라붙어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렁에 올려 둔 보리밥 한 덩이 아른거려 발걸음을 재촉한다.」(그 여름, 영수천에서)

「잠자리에 들면 마당에서 한 술 끓여내던 비릿한 멜것 냄새가 몽글몽글 올라왔다. 벌떡 일어나 식은 밥 한 숟가락을 퍼 담고 김치 몇 조각 길게 찢어 왕갈비 뜯듯이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매콤하고 진한 김치국물까지 비벼 먹고 나서야 위장도 만족한 듯 달래졌다.」(엄마의 손맛, 멜것 한 숟가락)

그러나 책장을 넘기면서, 진솔함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넘쳐나는 위트와 유머에 점점 매료되어 갔다.

○ 순간 순간의 위트와 유머로 공감 형성

숨기고 싶었던 찰나의 순간을 초보 작가인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슬쩍 웃음 짓게 만들고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발등을 밟지 않으려고 어거지로 뒤로 물러서는 순간, 봉긋한 내 가슴이 상대방의 가슴에 슬쩍 스쳤다. 그때 후배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누님, 그거 헛뽕이지요?”

순간 포복절도하며 자리에서 물러 나왔다. 교직이라는 문화에서 들어보지 못한 낯선 단어로 인해 오랜만에 시원하게 웃어보는 밤이었다.〈서울의 밤, 굴 한 상자〉

시골 학교 교사들의 서울 나들이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추억을 작품으로 만들어 낸 일부분의 내용이다.

지역 관광버스 회사를 돕기 위해 낡은 시골 버스를 대절했는데, 서울에 와서 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준비한 먹을 것을 싸 들고 여관방을 찾아 헤매던 이야기, 젊은 교사들이 노래방에 갔던 에피소드가 즐거리이다.

○ 독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장점

솔직 담백하면서도 자신의 가슴속 이야기를 은근슬쩍 드러내

놓는 일, 독자들이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책의 장점이다.

「내 차의 범칙금 용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저녁 늦게 귀가해 남편의 레이저 눈빔을 피하느라 싱크대 그릇들을 요란하게 닦았다.

“그렇게 과속할 때 돈은 아깝고 목숨은 아깝지 않아?”라고 한마디 들었다.

“그러게,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 돈은 아깝고 목숨 아깝다는 생각은 왜 못 해봤을까.〈인생의 규정 속도〉

「운전 경력 35년 동안 자동차 두 대를 안방처럼 깔끔하게 관리해주던 남편, 언제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었는지, 재산세를 언제 내는지, 전기세·수도요금 얼마인지 지금도 잘 모른다. 그야말로 날라리 마누라가 든든한 집사를 둔 덕이었다.〈삼식이라도 좋으니〉

박세원이라는 여성 교직자가 처음 교단에 서고 성장하기까지, 결혼 40년 동안 애뜻하게 외조해 온 남편과의 밀당에도 눈길이 갔다.





○ 삶 속에서 건져올린 깨달음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묻혀 있다”라는 말이 실감났다.

「여기에서는 누구나 통용되는 불문율이 있었다. 어머니뻘 되는 어르신에게도 호칭은 ‘언니’, ‘오라버니’였다.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했다. 언니, 동생 하는 호칭이 훨씬 정감 있게 들렸다. 잘 다듬어진 몸매도, 화려한 의상도 모두가 젊게 보이고 싶은 노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춤추는 인생, 라인댄서〉

누구나 빛나는 시절이 있었으며, 이른바 ‘어르신’들 또한 그런

시대를 걸어와 오늘에 다다랐다.

나이 든 어른으로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읽혀졌다.

‘처음’이란 건 왠지 낯설다.

모든 과정이 생소하기에 욕심이 생기는 법이다. 그래서 처음 책을 내는 게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세원 작가는 퇴직 이후 이 책을 내기 위해 그림과 사진을 배우는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한 흔적이 역력하다.

○ 이 책은 내 삶의 ‘영양주사’이며, ‘적금통장’

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달려온 교직자로서의 성실했던 한 평생을 바라보는 것 같다.

“이 책은 나에게 주는 ‘영양주사’이며, 나의 ‘적금통장’이며, 행복한 날을 위한 과정입니다.”라고 소회를 말하는 그녀에게서 새벽까지 자판을 두드렸던 시간의 두께가 묻어났다.

“결혼식 ‘신부 입장’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는 작가는 “한 줄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새벽까지 원고를 쓰다가 지쳐 잠이 든 아내에게 ‘밥 달라’는 소리도 못 했다”고 너스레를 떨던 남편 서은식 시의원은 “이제 글 다 썼으면 제발 밥 좀 주라.”라고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축하의 말을 더했다.

조심스럽지만 때론 번뜩이는 문제로, 어느 땐 덤덤하게 말하다가 반전의 결말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솜씨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첫 작품집이면서 자신이 살아온 세상의 소리를 담담하게 그려낸 수작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유럽풍 외관, 그림 같은 전망
펜션 '그 섬에 가고 싶다'
윤연수 대표

글 | 오성렬
poi3275@naver.com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壯子島里), 대장봉 기슭에 위치한 유럽풍 외관의 멋스런 펜션 '그 섬에 가고 싶다'가 푸른 바다가 한눈에 펼쳐진 고군산도의 전망과 더해져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013년, 전체 110평 규모(본건물 60평, 바비큐장 30평, 관리실 20평)로 신축한 펜션은 대장봉으로 오르는 산 중턱에 자리 잡아 그야말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천혜적 명당이라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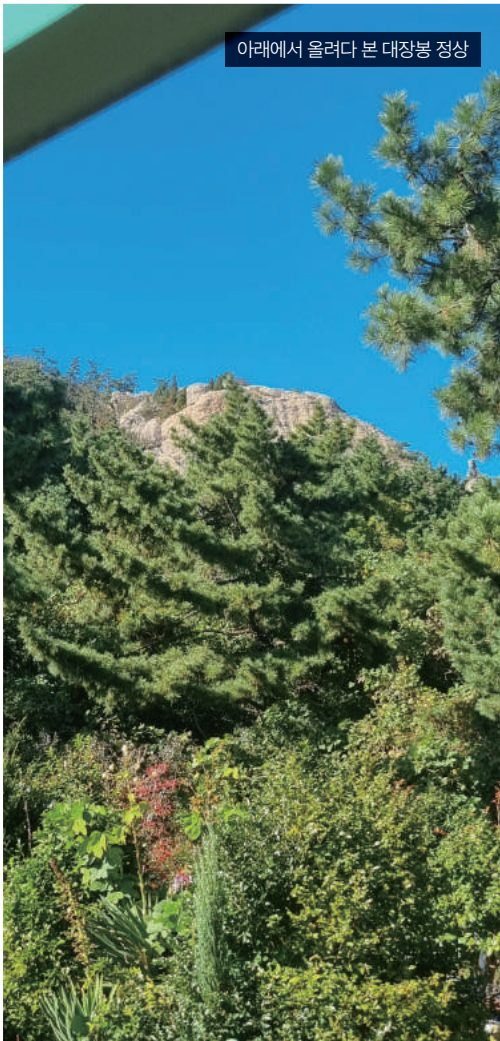
주변에 타 주택이 없는 독립적 건물인 데다 마치 조용한 공원 안에 있는 듯한 주변 환경도 이 펜션의 장점으로 꼽힌다. 2층 구조로 총 7개의 객실을 갖춘 건물은 2~4인실 및 7명이 이용할 수 있는 복층 1실 포함, 전체적으로 동시 30여 명의 수용이 가능하다. 펜션의 윤연수 대표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드라마 촬영지로 이용되기도 했었는데 임권택 감독의 8순 생일 때 부인과 다녀간 적이 있고, 국악인 오정해, 정치인 김한길, 최명길 부부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방문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다본 건물이 너무 멋있었다며 비행 조종사가 찾아온 적도 있다고 들려준다. 그래서일까, 올해 들어 이 펜션의 예약률은 지난해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다.



임권택 감독 부부



김한길, 최명길 부부와 함께



아래에서 올려다 본 대장봉 정상

장자도

장자도는 고군산군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섬으로 군산시내에서 차를 타고 들어갈 경우 선유대교와 장자대교로 이어진 끝 섬이다. 힘이 센 장사가 나와 장자도라는 했다는 이 섬은 과거 조기가 많이 잡히던 시절에는 수백 척의 어선이 햇불을 밝히고 조업을 함으로써 '장자 어화(壯子漁火)'라는 용어가 탄생했는데 이토록 천혜적 항구와 오랜 세월 어업의 풍요를 구가하던 곳이 었지만 다리가 놓인 이후 어업의 쇠락에 따라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는 많은 호떡 가게와 카페들이 상권을 이루고 있다.

고군산군도 드라이브 코스의 종점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북적임에 따라 북판에 크게 자리잡은 주차장은 작은 섬인 장자도를 모두 차지한 느낌을 준다. 장자도 선착장에서 대장도를 바라보면 해양을 향한 거대한 바위산 종턱의 펜션 '그 섬에 가고 싶다'가 맨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데 대장도(大長島)라는 이름에서 알핏 거대한 섬일 거라 느낌이 들지만 막상 섬에 들어서면 장자도에 비해서는 크지만 이름과는 걸맞지 않은 조그마한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대장봉 등산로

하지만 장자도가 여성적이라면 대장도는 해발 142m의 대장봉이 우뚝 솟아 있고 주변에 기암괴석이 둘러싸고 있어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 사람들이 대장도를 찾아오는 것은 거의 이 대

장봉을 오르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라 펜션도 성업을 맞고 있다. 다만 대장도는 주차 사정이 제한적이어서 장자도에 차를 세우고 짧은 연결로를 따라 도보로 이동하는 게 편할 수 있다.



할머니 바위 전설

장자도에는 슬픈 할머니 바위 전설이 전해진다. 이 할머니 바위는 약 9천만년 전의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으로 알려지며 바로 대장봉 중턱에 서 있다. 옛날 이 마을에 한 선비가 아내와 아들 하나를 두고 살았는데 어느 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자 그 아내가 매일 산에 올라 남편의 금의환향을 고대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장원급제하고 돌아

온다는 기별을 듣고 기쁜 마음에 아들을 등에 업은 채 산마루에 올라 남편이 탄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배에서 내린 남편은 뜻밖에도 웬 여인을 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청천벽력 같은 배신감으로 아내를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 바위가 돼버렸는데 사실 남편을 따라온 것은 여인이 아니라 남편을 수행하던 역졸을 오해한 것이어서 슬픈 이야기로 남게 되었으며, 누군가의 그리움과 기다림의 상징이 되고 있다.

펜션 안내판



마을 홍보관



장자도 토박이로 평생을 고향 발전의 애향심으로 똘똘 뭉친 윤연수 대표, 어릴 적 그의 부친은 선유, 장자도 일대에 수천 평의 토지를 소유한 데다가 안강망 사업 등으로 부유한 살림을 이룬 가운데 20여년 이상 마을의 어촌계장과 이장을 역임하는 동안 많은 표창도 받은 유지였다.

3남 3녀 중 셋째 아들인 윤 대표는 1972년도 군산수협에 입사, 근무 중 징집영장을 받고 75년도에 군에 입대했다. 군 복무 중에는 대대장을 따라 임진강 유역을 탐방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때부터 수석과 분재에 취미를 갖게 되어 이후 약 45년에 걸쳐 수집한 수량만 해도 수석 2천여 점, 분재 120여 점, 기타 민속생활자료 200여 점에 이른다.



제대 후 그는 익산의 모 건설회사 사장 비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2년 후 옥구군 교육청 임직으로 취업하여 근무 중 선유도 분교로 발령받아 약 30여년 행정직으로 봉직했다. 이 시기 마을 토박이로서 그는 교직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면서 여가 시간에는 목각 공예의 취미에 빠져들었다. 그의 펜션 주변에 전시되어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다양한 분재와 목각 공예품들은 모두 오랜 기간에 걸친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들이다.

마을에 건립된 홍보관(장자어화주민센터)의 관리책임자

이기도 한 윤대표는 자신의 수집품 및 기타 주민들의 기증품을 비롯하여 서양화 작가로서 캐나다 토론토미술작가협회장과 2023 서울월드아트엑스포 대표를 역임한바 있는 원로 양광수 화백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선유, 장자도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면서 특히 주말에는 관광버스 및 자가용으로 밀려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을 소화한다는 그는 미모의 부인과의 사이에 1남 2녀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인터뷰 중 카메라 앞에 선 포즈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한 부부애가 드러나기도 한다.

펜션 ‘그섬에 가고 싶다’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2길67
예약 : 010-5196-2112

‘난 프로다 홍미영 대리’

에이본 호텔 AVON HOTEL 우수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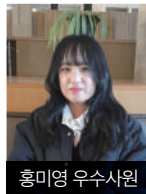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동료들이 인정한 프로페셔널

우수사원 선정 소감을 물었다.

“(쾌활하고 밝게 웃으며) 먼저 감사합니다.

제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추천해주시고 저도 모르게 진행된 것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은 아니지만, 전엔 부서별로 해왔는데 이번엔 다른 경우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긍정적인 부담감이나 책임감도 느낍니다.”



홍미영 우수사원

홍미영 대리. 에이본 호텔 입사 만 5년 차로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는 프로 호텔리어 (hotelier)다. 최근에 호텔 자체적으로 진행된 우수사원 선정 과정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선정됐다. 그의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역까지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다.



자신과 하는 업무를 소개한다면

“경영지원팀, 회계와 총무 파트입니다. 호원대학교 호텔과를 졸업하고 서비스 파트는 제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줄곧 사무직으로 일해왔는데 호텔 쪽은 에이본이 처음예요. 호텔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업무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여기는 타 부서와 협업도 많이 해야 되고, 호텔 자체의 시스템이나 특이성도 있고...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적응하고 재미있게 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오래 하고 있어요.”

부서나 업무의 매력에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타 부서와 협업이 많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더를 냈을 때 문제 없이 잘 흘러갔을 때, 그리고 문제나 리스크가 있을 경우 제가 잡아냈을 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만족한다. 동료 직원들이 다 좋은 것이 크게 다가온다. 특히 팀장님이 많이 배려해주시고 업무적으로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성장하고 있

다는 느낌!”

내가 보는 나의 성격

“공과 사 구별이 뚜렷하고 냉정한 편이다. 상당히 이성적이다. 긍정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 것 같다. 업무 특성과도 잘 맞고, 확실한 정답을 찾아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된 것 같아요. 타 부서와도 잘 친하게 지내고요.”

호텔리어의 직업적 매력을 꼽는다면

“호텔에 근무는 하지만 서비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당은 아닌데, 직원들을 보면 일반 서비스업에 비해서 배울 것이 많고 맛있는 것 같다. 특히 고객 응대나 격식을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이자 매력이다. 은 배우고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프런트)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요.”

스트레스 해소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웃음). 특히 똑같은 실수를 타 부서에서 계속 반복할 때, 계속 짊어줘도 전달이 안 되거나 할 때 찾아가고 애기하고, 최근 인원이 다소 바뀌면서 업무 과정이나 실수들이 중복될 때 많이 받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죠. 집이나 다른 데까지 가지고 가진 않아요.” 그리고 해소 방법은 “바로 해결해요. 무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맛있는 것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러 내려가고, 항상 팀장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시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하게, 즐겁게 생활해요.”

퇴근 후 일상은

“거의 집순이 수준예요. 체력이 약해 운동은 거의 못하고 게임을 좋아해요, 집에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해요. 가끔 (젊으신) 부모님과 가볍게 술 한 잔씩 하고, 밥도 먹고, 그래서 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젊게 재미있고 즐겁게 사시는데 항상 제 편이고 응원해주시고 믿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꿈이나 목표

“얹고 길게(웃음). 나이가 들 때까지 일하고 싶다. 지금 상황이라면 현재 만족하고 있다. 경영주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잘하시고, 잘 대해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좀 더 배우면서 발전시키고 제 업무에 더 정확하게 파고드는 게 재미있고 보람 있다.”

우리나라 전국에 단 하나뿐인 ‘에이본 호텔 군산’에 근무하는 ‘홍미영 우수사원’의 건승을 바랍니다.



호텔 전면 - 에이본 호텔 제공

◆ 에이본 호텔 군산(AVON Hotel Gunsan)은 2015년 4월 15일, 군산 시내 중심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군산의 관광지는 물론 새만금 국제산업단지와 비즈니스 시설 등이 인접한 군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이본 호텔 제공>

AYON HOTEL 에이본 호텔

군산시 해망로 10

홈페이지 <https://www.avonhotel.co.kr/>

문의 1577-4050



“임진한 내과의원 원장을 찾아서”

원칙과 정성으로 『환자와 직원이 행복』을 꿈꾸는 병원

글 | 신성호
shinez2580@hanmail.net

가을빛에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지절에 임진한 내과의원을 찾아
환자진료에 바쁜 시간을 내어임진한 내과의원의 임진한 원장을 만나 병원과 일상에 대한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병원개원을 꿈꾸다

임진한 내과의원 원장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임의 등 군복무 시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대학병원에는 의료 진료과가 다양하지만 특별히 신장내과 의사로 근무하다 보니 만성콩팥병 환자의 잦은 입퇴원, 응급실 방문으로 예후도 안 좋고, 환자와 보호자도 모두 지치고, 여기저기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서 작심하고 만성콩팥병 환자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주치의가 되고자 내과의원을 개원할 결심을 하였다.

규모 있는 병원 개원

하지만 병원의 개원 준비는 누구나 그렇듯이 좌충우돌 시행착오로 무척 힘들었지만 함께했던 교수님들과 개원 선배님들의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2017년 5월 고향인 전북 군산시에 내과의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개원하여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인공신장실 간호사 3명

에 투석환자 몇 명으로 시작했던 병원은 지금까지 어느덧 8년이 지났고,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한 번의 병원 확장공사를 하여 현재는 300여 평 크기의 넓은 공간에 외래와 인공신장실을 운영 중이며 투석기계 45대, 월 투석건수 1400여 회, 직원도 18명으로 늘어나 제법 큰 병원으로 성장하였다.

개원에 따른 어려움 극복

사실 8년 전 좌충우돌하며 개원을 준비하던 시기에는 임진한 원장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다. 병원 위치 및 교통, 주차장, 인테리어, 투석기계회사, 수탁업체, 의료폐기물업체, 광고, 직원구인, 면접, 개원자금마련 등등 처음 접하는 많은 일들과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때마다 수많은 판단과 결정 속에서 임진한 원장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다.

개원 전날 밤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고, 직원들과 함께 청소하면서 “과연 내일 개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였으나, 다행히도 개원준비를 잘 마쳐서 개원할 수 있었던 그때를 잊을 수 없다고 한다.





지인들의 도움을 받다

개원을 준비하는 것이 시설과 장비만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경험이 많은 의국 선배님들을 롤모델로 삼아 따라 하고 배우면서 가능했다. 개원은 원장으로서의 처음이지만, 수간호사도 처음 이어서 개원 전 선배님 병원에 파견근무도 하였었고, 의사 간호사 일 구분 없이 함께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고, 원장이나 수간호사가 먼저, 직접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개원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세상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단지 내가 잘나서 개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알고 있는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노력과 노하우 덕분에 원장 본인도 개원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내일처럼 헌신적으로 일해준 직원들과 수많은 유관업체들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최선을 다하는 진료와 치료

군산 지역에는 3차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전북대학교병원이나 원광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환자를 치료하여야 한다. 임진환 원장은 비록 1차 의원에서 환자를 보고 있지만, 항상 “과연 내가 3차 의료기관 의료진이었으면 어떻게 진료를 했을까”를 되새기며 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환자에게 친절도 무척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겠지만, 중증의 심장환자를 케어하려면 무엇보다도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몸이 평안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진료” “꾸준한 진료”가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했다. 임진환 원장에게 진료받는 환자들에게 가능한 신장이식을 받도록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여러 사정상 이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투석을 하면서 영양 상태 관리, 식이운동요법, 동반 질환 케어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당연히 혈액투석 분야에 대해서는 최신 트렌드로 진료하고자 학회 참여 및 최신 투석용품 사용에 주저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다른 의학적 문제들 즉, 심장질환이나 당뇨, 폐렴, 근골격질환도 주치의로서 케어하려고 노력했고, 원장의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주위 동료 의사들이나 대학병원 교수님들께 환자를 직접 부탁드리기도 했다.

유리 잔과 같은 환자들 돌봄

사실 투석환자는 유리잔과 같아서 자칫 작은 변화에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꼼꼼히 진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월수금 화목토 1년 내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언제나 임진환 원장의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해도 환자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한 세션당 2번씩 회진하려고 적극 노력했다.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이나 명절에도 관계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 년 내내 쉼 없이 병원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낮이든 밤이든 환자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지만 투석환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투석이기에 신장내과 의사로서 소명이라 생각하며 진료하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환자들과 함께 겪는 애환

환자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료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0~15%의 환자들이 돌아가시는데, 환자가 돌아가시면 임진한 원장은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었는지 후회가 되지는 않는지 항상 미안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된다.

임진한 원장이 한 번은 12월 30일 날에 투석 후 “내년에 뵈겠습니다!”라고 매년 늘 하듯이 인사를 했었는데, 투석 중에 그만 심정지가 생겨서 직접 심폐소생술 하고 대학병원까지 이송했었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는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1월 1일 새해 첫날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 수간호와 함께 그 환자 장례식장에 갔던 일이 문득 생각난다고 한다. 사실 환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가 남지 않으려면 평소에 성심껏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도 하고 강조를 한다.

성실과 최선의 길을 가다

임진한 원장은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하여 인공신장실 진료를 보고, 낮 동안 외래환자 진료를 병행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쉼 없이 바쁘게 보내면서도 그럼에도 의료진의 역량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회 활동이나 지역의사회 활동과 또한 외래에서도 신장내과 전문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 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을 비롯해서 신장실 간호사 모두 함께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서로 묻고 공유하며, 전용 회의실에서 격주로 원장 및 여러 강사들과 컨퍼런스를 하기도 하고, 학술대회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진료지침을 업데이트해서 항상 원칙에 따라 환자를 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의학계 소식에 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찾아보고, 배우고, 공부하는 노력과 자세를 낮추고 환자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각오

임진한 원장은 8여 년 동안 개원의로써 짧은 소견으로는 개원은 입지와 시설, 실력, 환자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라고 말하며, 의사와 환자 관계 뿐만 아니라 직원과의 관계, 관련업체 사람들과의 관계, 의사들과의 관계 등등 개원은 원장 혼자 힘으로만 한 것이 아니듯이 서로 관계를 주고 받으며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하며 환자도 행복하고, 직원도 행복한 병원. 항상 그 기본을 바탕으로 어디서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와 치료를 할 것이며 특히나 군산 지역에서 병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사로서의 정도를 걷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한다.

'임진한내과의원'

주소 | 군산시 월명로 255 신한월드타워 5층
전화 | 063-467-0875

‘먹이 나누기로 만나는 군산의 겨울 철새’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
유기택 지회장

글 | 오성렬
poi3275@naver.com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이하‘지회’)에서는 지난 11월15일 겨울 철새들을 위한 먹이 나누기 활동을 펼쳤다. 만경강 유역의 회현면 금광리 일원에서 실시한 이날의 행사는 겨울 철새 두루미 먹이용 쌀, 나락 등 사료 2천 키로그램을 비롯하여 독수리 먹이용 육류(돼지고기)100키로그램을 들판에 뿌려 군산을 찾은 두루미, 독수리 등의 맹금류와 오리, 기러기 등의 철새들에게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먹이 부족으로 인한 탈진과 아사를 예방, 천연기념물의 안정적인 보존 관리와 자연유산 보호 의식 확산을 기여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구 문화재관리청)의 복권기금 후원과 전주지방환경청 및 군산시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특히 ‘농업회사법인 어울림(대표 장병수)’의 통곡물 기부와 윤신애 시의원의 먹이나누기 장소 협조에 따라 성사되었다.



먹이 살포 광경



트럭에 실린 먹이용 곡식

회현 들녘을 비롯한 만경강 하류 연안습지에는 월동을 위해 해마다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천연기념물인 독수리 70여 마리와 흑두루미, 재두루미의 경우 매년 200여 마리 이상이 관찰되고 있다. 지회에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 3월 말까지 격주로 행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조류 보호와 서식 여건 개선, 시민참여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과 더불어 습지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새는 이동 경로에 따라 철새와 텃새, 그리고 나그네새로 분류한다. 텃새는 보통 참새, 박새와 같이 1년 내내 같은 지역에 터를 잡

아 서식하면서 계절적 이동이 없는 새를 일컬으며, 철새는 기후 변화, 먹이, 번식 등 생존을 위해 이동하는 새를 가리키는데 때로 변절 정치인을 이에 비유하기도 한다.

우리 군산의 대표적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의 경우 그 웅장한 군무와 비상 of 광경을 작품에 담기 위해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찾아 오고 있다. 또한 최근 군산을 찾는 새로운 손님 흑두루미는 25마리 정도의 개체수가 발견되고 있는데 흑두루미는 러시아 중부와 남동부, 중국 북부 지역의 습지에서 번식하고 전 세계 개체수의 약 90%가 러시아 동북부를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이동하는 겨울 철새이다.



회현 들녘을 찾은 두루미들

원래 흑두루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90% 이상이 일본 이즈미 지역에서 집중 월동을 하는 조류로 이때 한반도를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새였으나 지난해 겨울 무슨 일인지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에 가까운 7,600여 마리가 순천만에 찾아와 월동지로 자리 잡았다. 1996년 당시 불과 80여 마리에 불과했던 개체수의 95배 증가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흑두루미가 단지 어느 한 종(種)의 새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토록 경계심 깊은 흑두루미가 인간 곁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을 통해 보다 더 풍요롭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사례로 읽힌다.

하지만 공존의 틀을 벗어난 불행한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연간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차량 충돌(로드킬), 건물 유리벽 충돌, 총상 등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류의 경우 고양이나 까치, 맹금류 등의 공격을 받아 살상을 당하기도 하고 봄철 산란기 알에서 깨어 동지를 떠나는 도중 땅에 떨어지거나 먼 거리 이동에 따른 굶음과 탈진으로 도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다.

이 중에는 천연기념물인 큰서쪽새와 수리부엉이를 비롯하여 나그네새인 멧도요도 발견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조는 약 300여 건에 이른다는 것이 유기택 지회장의 설명이다.





유 지회장은 금강과 만경강의 물길, 새만금의 드넓은 숨결, 그리고 청암산 에코라운드의 600종이 넘는 생명들까지 자연이 스스로 생태계를 되살린 군산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면서 이곳을 조금만 더 돌봐주고 생명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인다면 순천만 이상으로 수백만 명이 찾는 생태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많은 생명을 잃고 있는 것도 우리 지역임을 고백한다. 2020년 이후 사냥이나 로드킬로 희생당한 고라니의 경우만도 무려 2,300여 마리에 달한다는 것이다.

고라니는 전 세계 90%의 개체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귀중한 생명 종임에도 유해야생동물이라는 낙인으로 무분별하게 살상함으로써 생태도시 군산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 유 지회장은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 자연은 인간의 오만으로 짓밟는 자연이 아니라 자연 속에 깃든 모든 생명체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가운데 모든 주민이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를 가꾸는 생태도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다. 방문 시 시 확산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접촉 최소화, 지정된 장소 외 통제구역 준수, 소음 및 위협적 행동 금지, 먹이주기 제한이 핵심이다. 또한 철새 분변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분변 노출 시 즉시 비누와 물로 씻어내야 하며 야생 조류와의 안전거리 유지, 사적인 먹이 주기는 금지하고 있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하는 철새지리 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물새류(오리, 황새 등 17개 분류), 산새류(맹금류, 기타 산새류), 멸종 위기종 급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생물종들이 언제 어디서 관찰되었는지 연도, 계절에 따라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
주소 | 군산시 철새로 439(서포리604-1)

노블갤러리 초대기획전 - 두 번째 이야기
글마음조각가 김정배 개인전
 《내 마음의 풍경 - 색과 감정의 대화》

글 | 이영미
 사단법인 이음예술문화원 대표
 ycm1022@hanmail.net



전시기간
 2025.11.3 ~ 2026.2.28
 장소
 노블한방병원 2층 갤러리 노블
 기획·주최
 사단법인 이음예술문화원

2025. 11. 3. - 2026. 2. 28
KIM JEONG BAE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으로 그림 그리는
내 마음의 풍경 - 색과 감정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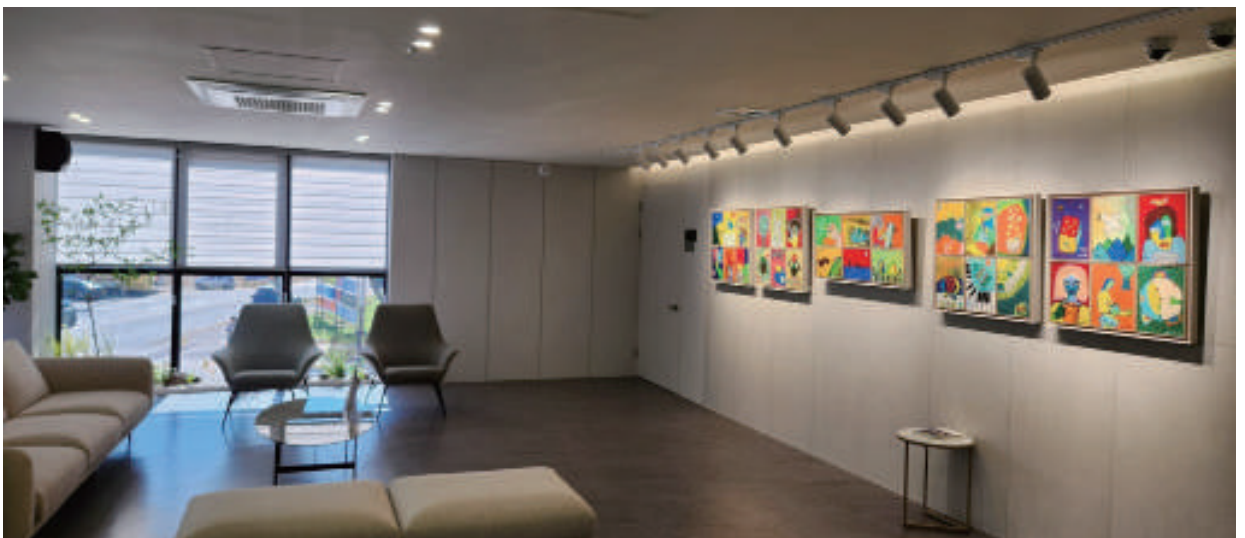
노블한방병원 갤러리 노블 전록 군산시 문화로 153 노블한방병원 2층 작품구입 문의 : (사)이음예술문화원 T.010-6371-7174

"노블갤러리 초대기획전의 두 번째 전시는 일상 공간 속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김정배 작가의 원화들은 병원이라는 장소 안에서 새로운 감정의 여백을 만들어냈다."

노블한방병원 갤러리 노블이 마련한 노블갤러리 초대기획전의 두 번째 전시로, 사단법인 이음예술문화원은 글마음조각가 김정배 작가의 개인전 《내 마음의 풍경-색과 감정의 대화》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시화집 『이별 뒤의 외출』 속 그림과 문장을 기반으로 구성된 원화전으로, 병원이라는 일상 공간 안에서 예술이 어떻게 머무르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기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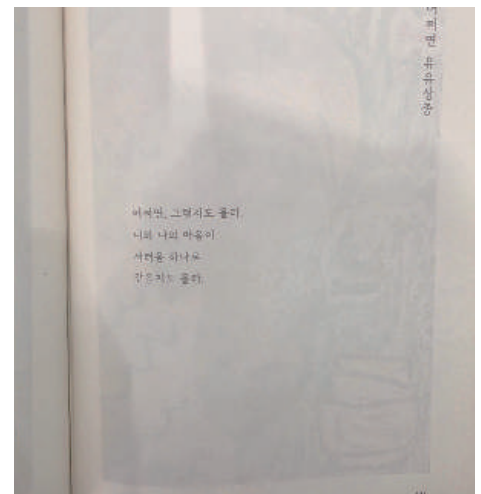
김정배 작가의 작품은 단순한 선, 명확한 색 대비, 크레용과 파스텔의 질감을 중심으로 감정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특징이다.
표정도 복잡하지 않지만 여운이 남는 인물들, 일상적인 사물

과 친숙한 동물이 반복 등장하며 작가의 감정적 언어를 형성한다.
책 속에 있던 그림들이 실물 원화로 전시되면서, 관람객은 시집과 전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성 방식은 여섯 점의 소품을 한 액자에 담아내는 '옵니버스 형식'이다.
개별 작품은 각각 독립성과 해석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하나의 프레임에 배치되면서 또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인물, 동물, 사물, 추상적 기호가 얹히고 분리되며 장면 간 흐름을 형성함으로써 관람자의 감정선도 함께 이동하도록 한다.
작품은 단일 소품으로도, 여섯 작품이 묶인 옵니버스 구성으로도 소장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갤러리 노블은 병원 내부에 위치한 열린 예술 공간으로, 방문객들은 치료나 대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시에 참여하게 된다.
의료적 긴장감 속에서도 예술이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하며,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시각적 여유와 정서적 환기를 제공한다.
이는 노블갤러리 초대기획전이 의도하는 '일상 속 예술 접근성 확대'라는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① 6점 옴니버스 구성 작품

새, 고양이, 인물 등 일상 소재를 직관적인 형태로 재해석해 하나의 서사처럼 배열한 전시의 대표 구성이다.

② 가로형 옴니버스 작품

시화집 속 이미지와 실제 원화가 맞닿아 있는 구성으로, 책의 장면이 실물로 확장되는 전시 의도를 가장 잘 보여준다.

③ 옴니버스 구성 작품 2

강렬한 색 대비와 단순한 형상이 조화를 이루며 전시장의 시각적 중심을 만들어내는 작품군이다.

④ 옴니버스 구성 작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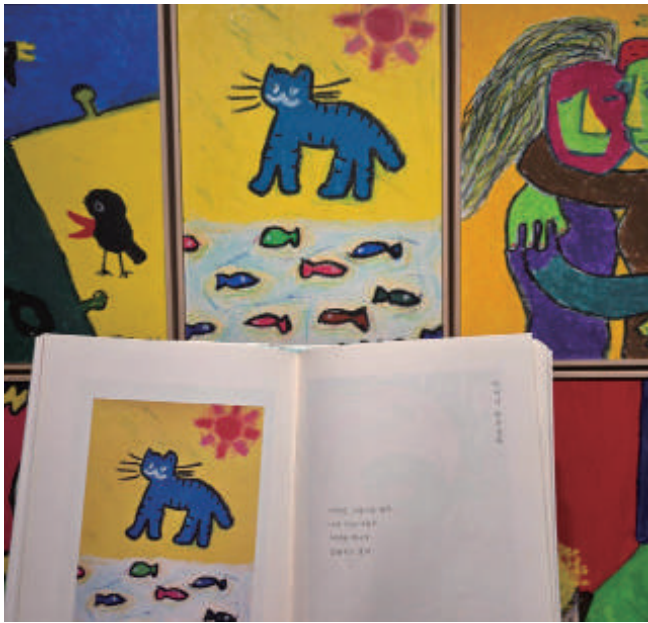
기호적 이미지와 반복된 소재로 작가의 상징 체계를 드러낸다. 실제 전시에서 소장 문의가 많았던 구성이다.

⑤ 시화집 속 문장 페이지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너와 나의 마음이 서러움 하나로 같을지도 몰라.”
원화와 시의 감정선이 직접 연결되도록 전시장 구조 안에 배치되어 있다.

⑥ 책 속 그림과 실제 작품의 비교 장면

책에서 보던 그림과 벽면의 원화를 동시에 마주하는 장면으로, 이번 전시 기획의 핵심인 ‘책 속 세계의 실물 확장’이 드러난다.



노블갤러리 초대기획전 두 번째 전시는 병원 복도 끝 작은 공간에서 조용히 시작됐다. 김정배 작가의 크지 않은 그림들이 모여 더 큰 장면을 만들어내는 전시다. 파스텔과 크레용의 색감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작품들 사이에 놓인 짧은 문장들이 그림의 틈을 채운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편안함'에 가까운 감정이다.

전시를 함께 만든 노블한방병원 최연길 병원장은 전시장을 여러 번 둘러보며 “병원에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게 참 좋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이라는 공간이 갖는 긴장감을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 마음이 딱 굳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들이 걸리면, 환자도 보호자도 잠깐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죠. 그게 이 공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는 단순히 꾸미는 작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또 다른 방법에 가깝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도 노블갤러리만의 색이 쌓이길 기대한다. “이번 전시가 두 번째인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병원이라는 장소에서도 좋은 작품들을 꾸준히 만난다면 시민들이 예술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요?”

김정배 작가의 작품은 크기가 작고 형태도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섯 점의 그림을 한 액자에 담아 구성한 옴니버스 작품들은 작은 장면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방식이다. 전시장에서 이 작품 앞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람이 많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음예술문화원은 그림이 병원이라는 장소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길 바랐다. 그림이 꼭 미술관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나가는 길목에 있더라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기획자는 작품을 걸며 그런 생각을 더 확신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진료 대기 중에도 그림 앞에서 한 번 더 시선을 두고, 시집을 넘겨보는 모습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전시 이벤트도 소소하게 준비되었다. 마음에 남는 그림이나 문장을 사진으로 찍고 SNS에 올리면 쌍화탕을 선물하는 방식이다. 전시를 조금 더 즐겁게 경험하도록 만든 장치다.

노블갤러리의 두 번째 초대전은 그렇게 병원 한쪽에서 꾸준히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작가의 작품이 이 공간을 채우게 될지, 기획자의 마음도 살짝 앞서가고 있다.

예술이 특별한 곳에만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일상의 한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전시가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특별한 아름다움을 일상으로’

박금자 갤러리-유럽문화 엔틱 사랑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엔틱, 시간이 만든 아름다움에 빠지다

“오랜 동안 해왔던 사업을 접고 우울증을 겪던 중 우연한 기회에 마주친 엔틱을 지금까지 수집하고 전시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아름다움과 품격있는 것들을 좋아했다. 작품들을 처음 볼 때 내가 작품의 주인공 같고 사랑받는 감동을 크게 느꼈다.”고 고백한다.

그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 갤러리카페를 시작했다. 사람들도 조금씩 만나면서.

“엔틱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시는 분들은 ‘여기가 서울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제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잘 알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만든 작품을 진열해놓은 것’ 같다고 말해요.” 엔틱 갤러리 카페-박금자 갤러리는 군산 현지인보다도 서울 등 외지에서 많이 방문한다.



박금자 갤러리 내부



박금자 갤러리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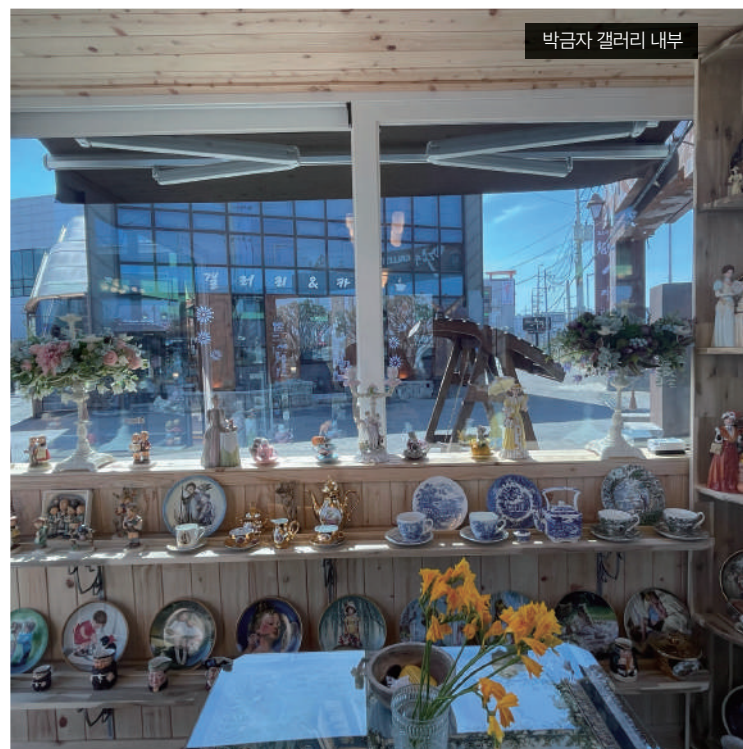
‘엔틱(Antique)’은 사전적으로 귀중한 골동품(물건)을 말한다. 그러나 사실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와 매력이 더해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즉 역사성, 희소성, 디자인이나 조형적 가치를 지닌 물건만이 진정한 엔틱으로 인정받는다.’고 한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체코 등에서 수입한 대작품들은 그 가치가 상상을 넘어선다. 각각의 작품도 뛰어나지만 컬렉션 세트를 구성하는 건 수집가로서 영광으로 여길 정도이다. 정말로 귀한 작품들이다.” 엔틱에 대한 박 대표의 자부심과 사랑은 처음의 감동 그대로다.

‘대작품’은 유럽의 문화재(급)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작품을 각

나라의 작가들이 재현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하나하나가 명품이 아닐 수 없으며 작품에 공인(증)서가 첨부될 정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한다. 박 대표는 “해당 나라에서는 해외로 반출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을 정도다.”고 귀뜸한다.

“작품을 팔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표가 없다. 손님들께서 때론 구입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격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처음부터 판매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않는다. 나의 원칙이다. 그리고 사실 엔틱은 가격 자체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엔틱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오셔서 직접 관람하고 아름다움을 공감하길 바랄 뿐이다.



박금자 갤러리 내부



박금자 갤러리 내부



다양한 디저트



수제청 음료



대작품 2



대작품 1



대작품 4



자신의 분신-효소 수제청

유럽풍의 엔틱 전시와 구성이 돋보이는 카페 내부는 밝고 고전적인 분위기가 공간의 여백과 사람들을 차분히 품고 있다. 전시된 작품들과 함께 테이블이나 의자 또한 조화롭게 마주하며 그날의 주인공을 맞이하는 듯하다. 갤러리 카페인 만큼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 등이 정연하게 진열돼있고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남이 만든 건 커피뿐이다. 그 외 수제청 음료를 포함해 전부 직접 만든 수제 음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효소 수제청은 나의 또 다른 자부심이라 할 수 있다. 옆 건물에 있는 저온창고에서 발효하고 있다. 완도에서 재배한 비파를 비롯하여 레몬, 자몽 등 종류도 많다.”

“특히 썩, 개복숭아는 강화도 산속에서 작은 어머니께서 직접 키워 수확한 것이다. 15~20년 정도 된 것들이

다. 매실 20년산도 있다. 양도 많지만 품질은 최고라고 자부한다.” 효소 수제청 역시 힘들어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을 위해 만나게 됐고 지금까지 열정과 자부심으로 몰입하고 있다.

사업 실패, 우울증 그리고 새로운 인생

박 대표 고향은 익산이다. 건설과 중기업을 하는 부군은 군산이 고향이다. 따로따로 각자 사업을 했다. 박 대표는 미용 사업에 15년 동안 종사했으나 회사가 망하면서 사업과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우울증을 1년 동안 심하게 겪었다. 남편의 사업을 열심히 도왔다.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일하며 20여년을 거의 두문불출하다시피 운명처럼 만난 엔틱 수집 그리고 수제청 발효 작업에 지금까지 손발을 아끼지 않고 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었다.



대작품 6



야외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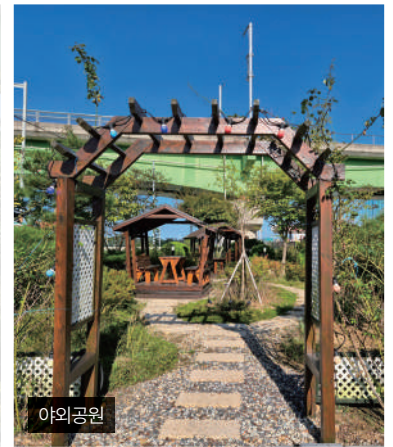
야외테라스 내부



야외공원



야외공원



야외공원

자만은 금물, 많은 시도와 변화

“너무 자만했던 것 같다. 모든 구성과 전시는 내 머리에서 나온다. 단일한 것이나 세트 구성이나 (미술이나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엔틱을 너무 사랑하고 내 안의 에너지와 열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많이 올 줄 알았다. 지금 현실은 너무 다르다.”

그만의 자만은 결코 아니었으리라. 세상일이 다 뜻대로만 움직이겠는가! 박 대표는 그동안 갤러리뿐만 아니라 야외공원과 테라스를 조성하며 서너 번의 변화를 시도했다. 목적은 늘 고객들의 편의와 행복함이었다. 서울 등에서 전시 제안도 받고 있는 박 대표는 최근 갤러리 홍보를 위한 외관 작업도 진

행 중이라고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오래전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 영국 작가)은 한국인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나는 물음에는 ‘No’라고 단호하게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할 일을 찾고 행한다고 평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멋진 ‘멜랑콜리’, 어떤 우울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행복한 삶을 향해가기 위한 좋은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노후를 준비하자.’ 박금자 대표의 소박하지만 절실한 다짐으로, 열정과 사랑으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답하는 것 같다.

박금자 갤러리

주소 | 군산시 개정면 구암로 210
영업시간 | 오전 10시 부터
예약문의 | 0507-1345-9435



8년째 이어 온 선행, ‘함께 라면, 잘 풀려요’

2025년 11월 1일, 시민예술촌 ‘기부와 나눔’ 행사
어려운 아이들의 간식을 후원하는 행사로 정착
기업체와 각계 각층의 후원자들 협찬 이어져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소속 11개 기관 물품 전달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 아이들 웃음으로 채워진 현장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다니는 센터에서 나온 친구들의 연주 실력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구암지역아동센터 이 OO)

“추운 겨울을 나아 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게 최고의 선물이지요. 손을 호호 불며 센터로 온 아이들에게 간편식 라면이라도 먹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예요?”(지역아동센터협의회 채현주 회장)

따뜻한 군산을 만들어 나가려는 마음에 8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함께 라면, 잘 풀려요’ 기부와 나눔 행사가 열린 군산 시민예술촌의 11월 1일 오후 3시.

지역아동센터들을 돕기 위해 기획한 이번 기부와 나눔 행사에는 ‘1318해피존, 군산신나는, 구암, 발산, 백두산, 아이소리, 엘림, 옥구, 파랑새, 한아람, 행복한’ 등 11개 센터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 지역사회 인사들 동참…나눔 확산

현장에는 김동구 도의원, 송미숙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양세용 의원을 비롯해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장, 채현주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박상배 새만금메세나협회 회장은 “예술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며 “라면 한 봉지와 화장지 한 롤이 쌓이고 쌓이면 주변의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민재 본지 운영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서로가 마음을 모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축하했다.

지역사회에 작은 온정의 손길을 보태고 있는 이 행사가 계속 이

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했다.

◇ 예술 공연으로 더해진 감동

이날 행사를 시작하는 흙소리청소년예술단의 사물놀이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은 장단을 맞추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예술활동 프로그램으로 기량을 갈고닦아 온 학생들의 악기 연주와 댄스 공연, 합창이 이어졌다.

센터를 대표하는 아이들의 공연이 이어질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공연의 피날레는 중양여고 댄스동아리 ‘온새미르’가 장식했다.

여고생들의 끼는 사회자의 감탄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



파랑새아동센터



백두산아동센터



행복한아동센터



엘림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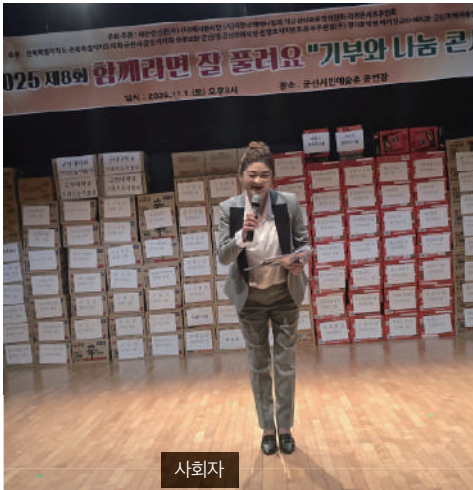
구암지역아동센터



온새미르



온새미르



사회자



행사중 이벤트

◇ 기업·기관·시민 대규모 후원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식 라면,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장을 후원해준 기업체와 단체, 일반인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주)도우팜투데이블, 군산·대산항만물류협회, 예치과, 대운산업, 세아베스틸, 동군산병원, 한화에너지, 옥구농협, 원예농협, 군산시수협, 농협군산시지부, OCI, SGC에너지, 금호환경, 승주건설, 석도국제레리, 전경호이비인후과, 디오션시티, 이성당, 대두식품, 하늘산업, 월드마린, 로템건설, 성광교회, KRCS농어촌공사, 세아베스틸노동조합, 군산시복싱협회, 전진카용품, 선유도관광진흥회, 세진렌터카, 월드마린, 군산예총, 흥소리, 학교법인 영광학원, 밝강도수산, 참사랑요양병원, 광고닷컴, 한국노총건설노조, 군산시공무원노조, 에이본호텔, 흥익종합관리, 금석FC, 하늘산업, 동아약품, 서해라이

온스, 박양기 전시민예술촌장, 성재경, 군산시가족센터, 군장대 양영숙 교수, 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벌리, 군장대학교, 수맥동인회, 군산시와 보건소, 군산시 실과별 참여 등.

◇ 본지 운영위원, 지역기업도 함께한 나눔

본지 운영위원들도 참여했다.

(주)우주환경, 군산장례식장, 정다운병원, 온누리도장건설, 농심 군산대리점, 만연숯불갈비, (주)대창, 삼호종합사무기기, 족발야시장, 명재철강, 화끈장어&갈비, 에스엠전기, 수산업 박주찬, (주)중일, 대운산업개발 김 만, 티엘특수물류, Y식자재마트 등이다. 운영위원들의 경우 행사 이후 후원 물품을 보내주기도 했다.



군산·대산항만 물류협회 회원사 일동



동우팜투데이블임직원 일동



옥구농협임직원일동(후원)



전경호 이바인후과 임직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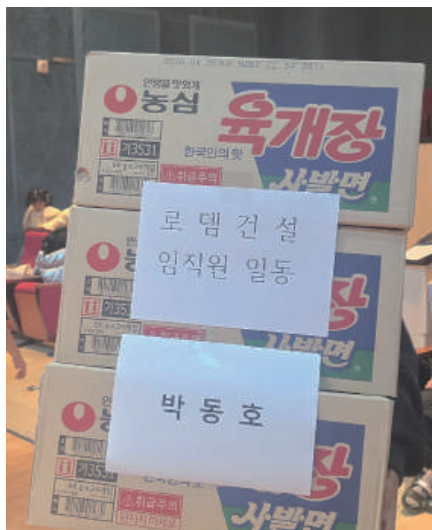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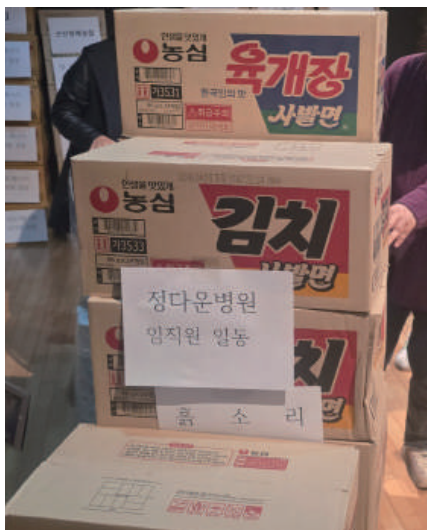


군산시가족센터



예치과 임직원 일동







◇ 후원품 배분...따뜻함 전달

현장에 도착한 다양한 종류의 라면과 화장지는 줄잡아 약 2,000만원 상당이었다. 이 물품들을 후원해준 기업, 단체, 일반인들의 바람에 맞게 참여한 11개 지역아동센터에 골고루 나눠졌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산북동에서 어른들의 점심 한끼를 도맡아 왔던 서군산무료급식소를 돕기 위한 행사도 마련되었다. 옥구농협과 농협시지부가 협찬한 쌀을 비롯한 생필품들은 서군산무료급식소로 전달되었다.

르네상스미술 - 5.후기 르네상스(매너리즘 미술)

이번 시간은 르네상스 미술의 마지막 시간으로 '후기르네상스'(1520~1600년경)이다. 전성기 르네상스의 이상적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고, 개성이 보다 드러나며 긴장 등의 감정적·복잡한 표현을 추구하던 시기였다.

예술가들은 개인적 풍요나 고갈을 마주할 때 그 예술적 감각이 극적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 율타리의 큰 틀이 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 전쟁이나 기근, 질병 등의 문제를 맞이할 때는 움츠러들게 된다.

후기 르네상스 미술은 종교 개혁(1517년)을 거치며 정치적 불안과 더불어 사회적 혼란도 가중되었다. 예술 속에서도 불안과 긴장, 비현실적 아름다움이 만나서 결합되기 시작한 이 시기를 '매너리즘 (Mannerism)'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첫 번째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후기 이전 르네상스와는 달리 전형된 인체가 아닌 왜곡된 형태를 추구하는 점이다. 복잡하며 긴장된 느낌을 중시 하였다.

둘째는 공간의 불안정성이다. 정확한 투시를 벗어났으며, 원근법을 의도적으로 뒤틀리게 하거나 비현실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색채와 빛에 대하여 실험적 채색을 한다는 것이다. 화가들은 명암 대비가 강하고, 자줏빛이나 연보라 등과 같은 비현실적 색조가 자주 등장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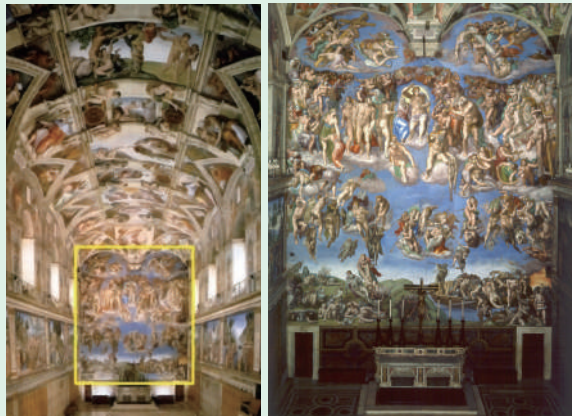
마지막 네 번째는 단순히 아름다운 인체나 종교적 심취만이 아닌 예술가의 감정, 철학, 인간 내면을 표현하였으며, 지적이며 개성적 표현을 화면에 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이를 대표하는 화가와 작품을 감상 해볼 차례이다. 후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로 미켈란젤로, 파르미자니노, 브론치노, 엘 그레코 네 사람을 소개하려 한다.

먼저 소개되는 화가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이탈리아)이다.

전성기 르네상스의 완성 하며, 후기 르네상스의 문을 연 인물이다. 인간의 근육과 내적 긴장을 강조한 극적인 인체의 드라마틱한 구성 표현 하였다. 신의 세계를 웅장하고 감정적으로 표현 하였으며, 균형보다는 힘과 에너지를 중시한 화가이다.

대표작으로는 '최후의 심판', '피에타', '다비드상'이 있다.



최후의 심판

1541년, 프레스코, 1370*1220cm, 바티칸 시스티나성당

다음으로 후기의 '매너리즘'의 대표적인 화가 꼽히는 화가 '파르미자니노 (Parmigianino)'이다. 파르미자니노는 1503~1540년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태어났다.

인체의 비례를 의도적으로 늘리고 왜곡하여 우아한 긴장감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며, 감성적이고 여성스러운 섬세함을 가지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목이 긴 성모', '자화상(볼록 거울 속의 화가)'가 있다.



목이 긴 성모

1534~1540년, 유화, 135*219cm, 피렌체 우피치미술관

후기 르네상스 '매너리즘 미술'의 대표적 초상 화가는 '브론치노 (Bronzino)'이다. 그는 피렌체 출신으로 1503~1572년 머물렀다. 그가 그려내는 초상화의 특징은 감정이 절제된 차가움과 냉철함이 있다. 색채는 세련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그가 그리는 초상화는 지성미를 지향하며, 귀족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초상화의 대표작으로는 '엘레오노라 데 톨레도 초상'이 있으며, 오늘은 그의 절제된 초상화 작업에 비해 감성적이며 부드럽게 묘사 되는 '시간과 사랑의 알레고리'를 소개 한다.



시간과 사랑의 알레고리
1545~1550, 146*116cm, 런던 네셔널 갤러리

마지막으로 소개될 화가는 1541~1614, 그리스 출신의 '엘 그레코 (El Greco)'이다. 그의 주 무대는 스페인 이었다.

후기 르네상스의 절정이자 바로크의 다리 역할을 하였다. 늘씬하고 왜곡된 인체를 표현하며 강렬한 명암과 푸른색, 붉은색, 노란 색등의 원색적 색채 대비가 특징이다. 그의 작품은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며, 영적, 신비적 분위기 강조하고 감정을 극대화 시키는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체의 왜곡된 표현은 후대 표현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작품 속에서 보이는 '빛'은 단순한 명암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신의 존재와 영적인 계사를 상징한다고 한다. 대표작으로는 '그리스도의 옷을 벗김',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톨레도의 풍경'등

이 있다.



그리스도의 옷을 벗김

1579년, 캔버스에 유채, 285*173cm, 톨레도 대성당

영원히 계속 될 것만 같았던 후기 르네상스는 감정적 불안한 표현을 거쳐 가며 바로크 미술로 이동하고 있었다.

바로크 미술에서는 르네상스 끝에 나타나는 이러한 감정들이 더 극적으로 증폭하며 빛과 움직임이 강조되기에 이르게 된다.

이제 '바로크 미술'로 넘어가기 전에 그간의 르네상스 미술을 정리해보자면, '르네상스 미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부활과 종교적 중심에서 벗어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회귀 기간이라고 정리 할 수 있다.

다음에 기고될 칼럼들은 바로크 미술의 5대 화가들이다.

대가들 속에서 미술의 역사적 바탕이 어떻게 세워져가고 있는지 한땀씩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보길 기대한다.



배수정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학교 서양화 강의

아! 아버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창비, 2023.



이 세상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선 도저히 알 길이 없는 일이 허다하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그냥 허투루 나온 게 아니다. 남녀 간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세간에 널리 회자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남녀 간의 관계는 정말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남녀 간 경험의 차이와 비대칭이라고 생각한다. 남성은 여성으로 살아본 경험이 일 분 일초도 없다. 그 역도 마찬가지. 서로를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 그러한 이치는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젊은이와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자와 가난한 자 등등. 오늘 독서 칼럼의 화두로 삼고자 하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또한 크게 바를 바 없다.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아버지와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 또한 드물 것이다.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로막거나 횡방을 놓는 '빌런'이거나(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다른 아버지들처럼 잘 나지 못하고 용렬해서 부정하고 싶은, 하여 나는 원래 고귀한 신분의 태생이었는데 잘못 되어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판타지를 꿈꾸게 만드는 대상이기도 하다.(가족 로맨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후 아버지가 되거나 가족 부양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면서 그렇게도 부정하고 싶었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때늦은 동병상련의 자기 연민에 속수무책이 되곤 한다. 하지만 이제는 저 까마득한 하늘의 별이 되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다만 간절한 그리움으로 사무치기만 할 뿐이다. 아! 아버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우리들을 건사하고 책임지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국 소설사의 지형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부정에서 이해와 화해로 바뀌는 서사의 질료를 자신의 작가적 정체성의 인장으로 각인하고 있는 작가들은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김원일, 김성동, 이문열, 김소진 등 그 이름만으로도 한국 현대 소설사에 목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들 작가들은 어린 시절 결핍과 신산의 세월을 강제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화해와 그리움으로 이동하는 서사의 궤적을 공유하고 있다. 오늘 독서 토론 대상 텍스트로 소환하고자 하는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 일지』 또한 그러한 맥락의 동계에 놓인다. 이 작품 또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만의 감정이 장례식을 계기로 이해와 존경 그리고 그리움의 감정으로 형질 변화를 이루는 궤적이 서사의 핵심 질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생활하던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태도는 “나는 나를 이 세상에 불러낸 원흉(혹독한 전기고문으로 임신 불가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정자 상태를 약한 제의 처방으로 되돌려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게 만든 최약국)을 일별도 하고 싶지 않을”(28면) 정도로 원망과 불만이 지배적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빈소를 찾아온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측은지심에 기초한 진정한 사회주의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다가 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실체를 뒤늦게서야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책과 회한으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 이제는 한 줌 먼지로 천지간을 떠도는, 실체가 소멸된 아버지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자리를 잡는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 온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진지 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7면)로 문을 여는 이 소설에서 서사 시간은 장례가 치러지는 3일간이다. 하지만 그 3일간의 장례 절차를 치르는 과정에서 과거 회상이나 조문을 위해 빈소에 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알게 되는, 8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아버지의 생애 서사 전반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생애를 통해 해방 정국을 전후한 이후 70년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역사와 질곡이 압축적으로 제시된다.

나의 아버지 고상욱 씨는 십대 후반에 선택한 ‘전직 빨치산’으로 이십년 가까운 감옥살이를 마친 뒤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 고향 반내골에 터를 잡고 농부의 삶을 살다가 82살에 생을 마감한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그는 니체적 의미에서 ‘어린이’의 정신과 태도를 몸소 체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한평생은 자신이 주체적인 입법자가 되어 사막과도 같은 삭막한 세상을 즐거운 놀이터로 만들며 시대를 넘어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어내는 삶의 실천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만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사회주의자”(14면)의 삶을 살았던 나의 아버지는 이론과 말에는 열심이나 실천(實踐躬行)에는 소홀한 부류들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 주로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빈소를 찾아온, 생전에 아버지와 이러저런 사연으로 교분이나 인연이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는 아버지는 측은지심의 디엔에이를 생애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보인다. 측은지심을 천품으로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는 주변에 딱한 처지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줄 뿐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액색한 정경이나 궁박한 사정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고서 서슴지 않고 나선다. 한마디로 교환의 비대칭을 작동 원리로 하는 현대(hospitality)가 몸에 밴 존재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고향 마을에 행상을 왔다가 막차를 놓치고서 망지소조 어찌할 바 모르는 딱한 처지의 방물장사 아주머니에게 아버지는 하룻밤 잠자리와 웅성한 식사로 대접하는 환대를 실천한다. 더구나 생면부지의, 그것도 아주 초라한 행색의 낯선 아주머니를 집에서 재워 보내는 일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아내의 곡진한 만류와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한다. 돌아오는 건 버룩과 서까래에 매달아놓은 마늘 반접을 도둑맞는 일이다. 그리고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빚보증을 썼다가 대신 빚을 떠안은 곡경을 치르면서도 번번이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게다가 보증으로 떠안게 된 빚을 혼자 감당하지 못해 나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를 참다못한 어머니의, “아이고, 워디 물레줄 것이 어서 허다허다 빚겨정 물레줄랴요? 애비가 돼가고 딸내미한테 해준 것이 멋이 있다고 자를 보증을 세우요, 세우길. 당장 그년 찾아오씨요.”(58면)라는 어머니의 타박과 원성에도

아버지는 “시끄러. 오죽하면 밤도망을 쳤겠어! 그 사람이라고 호의호식하고 삼시로 그 돈 안 값겠는가. 오죽하면 친정에 연락도 못허고 죽은디끼 살겠어!”(60면)라며, 자신의 ‘심팔번인 오죽하면 타령’(102면)으로 응대하면서 결코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법이 없다.

이런 환대의 실천은 예사이고 매사 우리 일 보다는 동네의 남의 일을 먼저 살피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못마땅해 하는 어머니의, “나가 참말 복장이 터져서 못 살겠소”라는 하소와 꾸념에 아버지는 또한 “자네 혼차 잘 묵고 잘살자고 지리산서 그 고생을 했는가? 자네는 대체 뭇을 위해서 목심을 건 것이여!”(61면)라며 목숨을 건 지리산 빨치산 투쟁의 역사적 대의와 신념을 상기시키면서 어머니를 설유·신칙하고 어머니는 기꺼이 설득·설복당한다. 압권은 맛담배와 술을 같이 마시는 관계로 지내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베트남 이주 결혼 여성의 딸이 빈소를 찾아와서 아버지와와의 일화를 들려주는 장면이다. 자기 아버지의 일상적인 폭력으로 인한 엄마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그 딸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 방황하다 만난 아버지와 검정고시와 미용사 자격증 약속을 한다. 빈소에서 검정고시와 미용사 자격 시험을 약속한 일을 회상하며 그 아이가 건네는, “불으면 술 사준다고 해놓고...할배는 씨.....약속도 안 지키고...”(141-142면), “미용사 자격증 딸라고요. 할배가 자개 머리로 연습하라고 했는디...헛, 머리칼도 월매 없음시로.”(143면) 등 투정 어린 추도는 사뭇 감동적이다.

“아버지. 아버지 딸, 참 오래도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뭐, 환갑 전에 알기는 했으니 쪽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간의 오만, 무례를, 어리석음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길.....감사합니다, 아버지. 애기도 하는 이 쉬운 말을 환갑 목전에 두고 아버지 가고 난 이제야 합니다. 어찌겠어요? 그제 아버지 딸인걸. 이 못난 딸이 이 책을 아버지께 바칩니다.”(268면)

이제는 까마득히 높은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아버지에게 정지아가 바치는 사부곡(思父曲)이다. 정지아를 따라 나도 월남 이후 같은 황해도 해주 곡산 출신의 어머니와의 사이에 7남매를 낳아 가르치고 건사하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시다 저 하늘의 별이 되신 아버지에게 바치는 때늦은 회한과 안부 인사로 이 글을 매조 지고자 한다.

아버지! 칠순의 나이를 지척에 둔 미옥한 아둔패기 똬레 아들 이 아버님께 후회막급의 때늦은 안부를 여쭙습니다. 아버님! 그곳에서 잘 계시지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공종구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권불십년(權不十年) 매스미디어, 현명한 광고주가 돼라

매스미디어(대중매체)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특히 광고의 영역에서 매스미디어의 대표격인 신문과 TV의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거대 매스미디어가 차지하고 있던 광고의 영역이 파편화 되고 쪼개지면서 다양한 미디어 채널로 옮겨갔다.

볼 채널 즐길 채널이 많아지며 신문 구독률과 지상파를 포함한 TV 시청률이 낮아지고, 이들에게 기대했던 광고효과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제 돈만 있다고 광고를 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어떤 미디어 채널을 선택하느냐가 광고의 승운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필자도 사업을 하며 광고란 광고는 모두 경험해 본 바가 있다. 신문, TV 특히 홈쇼핑은 누구보다 일찍이 경험을 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이름인 삼구쇼핑을 통해 지난 1999년부터 홈쇼핑에 진출했었다.

당시 인지도 높은 연예인도 직접 섭외해 홈쇼핑에 출연시키며 나름의 성과도 냈던 기억이 있다.

역으로 당시 홈쇼핑에 투자를 했던 것을 후회 한 적도 있었다. 물건은 잘 팔리는데, 여기 저기 내야 할 돈이 많아서 투자 대비 이이이 나질 않으니 계속 이어다도 될까라는 물음이 이어졌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홈쇼핑을 통해 필자가 지금껏 사업을 유지할 있는 원동력을 얻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때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알린 덕에 아직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홈쇼핑 경험이 없었다면 자체적으로 통신판매시스템 구축을 해 제품을 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홈쇼핑의 경험을 살려 콜센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통신판매를 할 수 있게 돼 사업이 커질 수 있었다.

당시엔 자체적으로 통신판매시스템을 구축한 곳이 몇 없을 때다.

당시에는 업계의 판매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의 이런 경험을 요즘에 빗대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디어 채널이 다분화 되고 제품 판매 라이브 방송이 곳곳에서 생방송 되고 있다.

거대 매스미디어의 힘은 약해지고 춘추전국시대 마냥 수많은 미디어 채널들이 앞다투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매스미디어의 광고비는 도통 내려갈 생각이 없다.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소비자들이 백날 천날 자신들을 찾아 줄거라 착각하고 있다.

광고주들이 현명해야 한다.

홍보비의 대부분을 매스미디어에 투자해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옛 습관을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

적은 돈으로도 매스미디어보다 큰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제품 구매와 직결 될 수 있는 안성맞춤 광고 채널이 매스미디어 말고 많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매스미디어에 한번 광고 나올 돈으로 제품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놀라움을 경험해야 한다.

요즘 매스미디어는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어울릴 듯 하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 못 간다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매스 미디어들은 거의 70~80년은 권세를 누렸으니 오래도 누린 듯 하다.

현명한 광고주들이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 광고를 선택해 컷대 높은 우리나라 매스미디어 광고 시장의 기를 꺾어놓길 기대한다.



김철호
식품의약학 이학박사, 대한민국명인
수산신지식인, 내고향씨푸드 운영

씨앗의 방



풍선덩굴



한옥마을 풍선덩굴



풍선덩굴 꽃



풍선 속



열매에 그려준 얼굴

처음 풍선덩굴을 만난 곳은 전주 한옥마을이었다. 그곳은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도 아름다운 풍경뿐이었다. 골목을 지나던 중 대문 위로 뻗어 수없이 많은 방울을 달고 있는 풍선덩굴을 보고 반한 것이다.

두 번째 놀라움은 씨앗을 얻어 와 아파트 발코니의 좁은 틈에서 싹을 틔웠을 때였다.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모은 크기만큼이나 통통한 열매와 달리, 그 열매를 만드는 꽃은 아주 작아 깨끼손톱만 했다. 그 희고 작은 꽃이 어찌면 자기보다 훨씬 큰 풍선 모양의 씨앗 방울 만들 수 있을까, 신기하기만 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그 풍선 모양의 열매를 가로로 자르면 세 칸으로 나뉜 방이 나타나고, 그 안에 씨앗이 사이좋게 자리한다는 사실이다. 씨앗의 방은 넓고 안전하며, 예쁘고 다정하고 공평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을 오래 들여다보며 했다.

네 번째는 씨앗에 점 두 개를 찍고 밑줄 하나만 그어도 금세 원숭이 얼굴이 된다는 것. 아무것도 그리지 않으면 하트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아이들과 함께 무엇이든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을이면 씨앗을 받아 두었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재미도 쏠쏠하다. 어느 집 마당에 또 피어나 아이의 마음을 지닌 어떤 어른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할까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이런 풍선덩굴도 독성이 있어 어떤 나라에서는 유해식물이나 잡초로 취급되어 마구 뽑히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운 겨울을 나지 못하고 일 년초로 살다 사라지지만, 그 짧은 계절 동안 사랑받는 것도 풍선덩굴의 일생으로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신술원 시인 /
시인/ 한국아동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문 밖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 곤충을 사진에 담고 이야기한다.



전북 최초 이명치료가 'ALTMS' 도입



전 경 호 JKH ENT Clinic
이비인후과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252 2-3층 T: 063-471-5575

군산과 새만금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매거진 군산·새만금을 위하여 보내주신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매거진 군산·새만금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독자 관리를 위하여
CMS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이 신청서는 군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1. 권유하신 분께 직접 전달
2. 팩스로 송부 (063) 442-3883
3. 사진 찍어서 이메일 newgunsanews@naver.com

이런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문화공감 사람과 길(매거진 군산) ·대표자: 채명룡 ·사업자등록번호: 241-43-01344
·사업장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절골3길 16-2(신흥동) ·수납 요금종류: 구독료 납부

- ☐ 매거진 군산·새만금 구독 (7,000원/월)
☐ 새군산신문 + 매거진군산·새만금 구독
(10,000원/월)

■ 구독받으실 주소

·출금계좌 예금주명_

·금융기관명_

·출금 계좌번호_

·예금주 생년월일_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_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신청인명_

·예금주와의 관계_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_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인 또는 서명)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맛있는 재료로 만든 졕발의 명가

대표 전 재 용

군산시 미장1길 38 102, 103호

TEL: 063-453-4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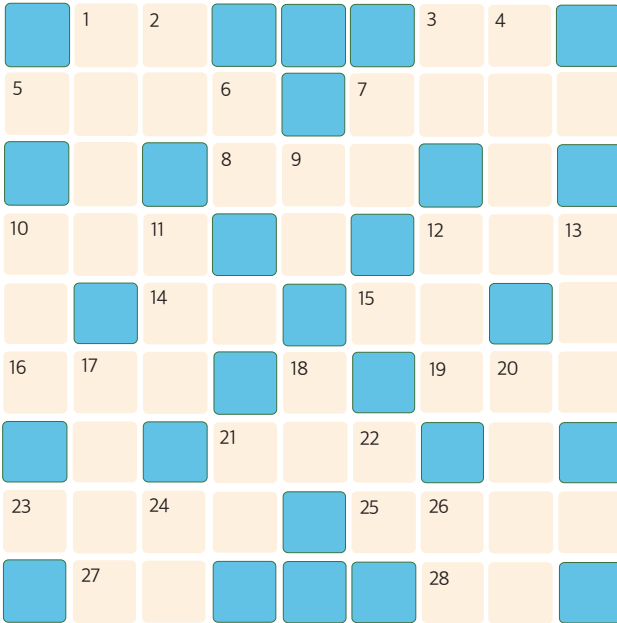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세아베스틸
이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메이커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to be Special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70



신	단	수	마	추	픽	추
일	식	현	대	풍	분	
문	지	기	미	낙	조	
일	도	매	태	엽		
답	습	국	방	부	비	수
	진	노	죽	보	럼	
	중	신	땅	국	세	청
송	사	기	곤	안	정	
이	탈	리	아	김	민	석

<169호 해답>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 새만금에 보내주세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에이브호텔 썬데이 브런치 2인)을 드립니다.
 Fax. (063)442-3883 E-mail. leejony_@daum.net
경품 추첨을 위해 팩스, 메일 보내주실 때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출제: 오성렬(편집위원) 협찬: 에이브호텔 군산

가로 열쇠

- 01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 03 임금이 거처하는 집.
- 05 몸을 움직여 그 힘으로 하는 노동.
- 07 번갯불 같이 매우 재빠른 시간이나 동작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08 10월9일.
- 10 한 걸음 더 나아감,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함.
- 12 책을 인쇄하여 발간하는 회사.
- 14 해부하여 검사함.
- 15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옴.
- 16 곡물을 사고파는 일. 또는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 19 글을 지어 발표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21 분수에 맞지 않는 필요 이상의 겉치레나 외관상의 화려함에 들뜬 마음.
- 23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제 자식처럼 기른 아들.
- 25 겉으로는 멀쩡하나 앓음 보지 못하는 눈.
- 27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
- 28 살아 있는 나무.

세로 열쇠

- 01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평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대신 쉬 수 있도록 한 날.
- 02 예전에 권문세가에서 사사로이 부리던 노비.
- 03 판소리에서 소리를 잘하는 광대를 이르는 말.
- 04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한쪽이 재판에 불출석했을 경우 출석자의 주장만 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재판.
- 06 얼어붙을 정도로 심한 추위.
- 07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 바로 앞날.
- 09 모래의 다음날.
- 10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곡.
- 11 붓짐장수와 등짐장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12 드나드는 문.
- 13 어떤 사상에 대하여 조예가 깊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 17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두 방면.
- 18 상영되던 영화나 드라마 따위가 완전히 끝남.
- 20 여러 교과목 가운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
- 21 육상 경기의 장애물 달리기에서 쓰는 목제 또는 금속제의 패널.
- 22 공방미삼백석에 자신을 팔아인당수에 몸을 던진 소설 속 여주인공.
- 24 때가 마쳐 이르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말. 결혼하기엔 00이르다.
- 26 주로 육식을 하는 새나운 짐승.

"매거진군산 새만금과 함께할 필진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063-445-4700

이메일: leejony_@daum.net